

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자 초청 오찬

합심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

여러분.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.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해 대회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, 그 결과 상당히 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소리 높여 외치면서 국내에서 해왔는데, 실제로는 바깥에서 조용히 하신 분들의 노고가 드러나지 않게 아주 컸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번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.

동계 스포츠에 활성화에 기여한다던가, 또는 우리 국가적인 큰 축제를 통해서 또 한 번 국민적 축제, 또는 경제적 도약의 성과가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, 유치에 성공하면 그것을 계기로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아주 뜻있는 일입니다. 여러분들의 노력에 각별히 기대를 걸겠습니다.

제가 같이 동행해 도와드리면 좋겠는데, 중국과 러시아 방문 등 일정이 많아서 못했습니다. 상징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가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겠지만, 실질에 있어 총리께서 다녀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합심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. 감사합니다.